

박 인 원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날로 발전하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될 인재를 기르고자 설립된 마이스터고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앞다퉈 지원하면서 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개교식과 학생들의 1회 졸업식에 참석했고 임기 중엔 물론 퇴임 후에도 마이스터고를 방문해 학생들의 자신감에 찬 눈망울과 마주했던 저로서는, 지금도 마이스터고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집중할 정도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가장 큰 힘일 것입니다. 저는 유로존을 휩쓴 경제위기 속에서도 마이스터와 히든챔피언을 기반으로 한 독일만이 유일하게 성장을 지속하며 세계경제 리더로 우뚝 선 것을 보면서, 마이스터고 인재들이 있는 한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다른 열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주고 계시지만, 학생들이 국내외 산업현장에 나가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계속해서 애정을 갖고 마이스터고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3.12.19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 이 명 박

